관세 충격 현실화…현대차·기아 5월 미국 수출 21.5%↓

국내 생산량도 감소…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타격 불가피
"수출 다변화·지역 업체 보호 위한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행한 수입차 25% 관세 여파가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업계들이 현지 재고를 먼저 소진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지난달 대미 수출이 급감했고, 국내 총생산 규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물량이 35%에 이르는 광주 기아차 공장 역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5월 미국 수출 대수는 총 7만 7892대로 전년 동월(9만 9172대) 대비 21.5% 감소했다. 현대차는 31.4% 줄어든 4만 2574대, 기아는 4.8% 감소한 3만 5318대다.

이는 관세 시행 이전 확보한 비관세 재고를 활용해 고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 자동차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관세가 발효된 4월 초 기준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재고 일수는 각각 94일, 62일이었다.

수출 감소에 따라 국내 생산도 줄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5월 국내 생산 대수는 29만 1649대로 전년 같은 달(30만 6994대)보다 5.0% 감소했다. 현대차는 15만 7314대로 6.0% 줄었고, 기아는 13만 4335대로 3.8% 감소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관세 여파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달 1만 8283대를 미국으로 수출하며 전년 동월(1만 6654대) 대비 10%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작년 기준 총 생산 대수의 3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발 관세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량 축소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포함한 국내 생산기지 감축 운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우려다.

특히 자동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 경우 지역 부품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지역 경제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 전체 생산 규모는 지난달 총 35만 8969대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3.7% 감소한 상태다.

반면 중견 3사인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북미 수요에 힘입어 생산량이 소폭 증가하며 전체 역성장 폭을 다소 줄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대미 관세 여파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2.7% 줄며 글로벌 순위가 6위에서 7위로 밀려난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중심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급속히 약화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 충격은 광주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 해외 현지 공장과의 역할 조정, 지역 부품 협력 업체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수도권 구직자 63% "좋은 일자리 있다면 지방 취업도 가능"

대한상의 '상반기 채용시장' 조사
취준생 "경력직 선호 취업 장벽"

수도권 신규 구직자 10명 중 6명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지방 취업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대졸 취업 준비생 중 절반 이상은 경력 위주 채용 방식이 취업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는 현재 14만4181건으로 이 가운데 경력 채용만을 원하는 기업이 82%였다.

신입 직원만을 채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6% 수준이었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복수응답), 53.9%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인력을 원하는 것과 달리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청년 구직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 청년 구직자의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경력 중심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인턴 확대, 학점 인정 연계형 현장실습 확대, 직무 기반 실무 훈련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방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감지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 신규 구직자의 63.4%가 '좋은 일자리를 전제로 비수도권에서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취업을 위한 조건은 '높은 급여 수준'(78.9%), 양질의 복지제도(57.1%), 워라밸 실현(55.8%), 고용 안정(42.5%), 커리어·직무역량 개발(29.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파격적인 규제혁신, 과감한 인센티브, AI 인프라 등을 조성해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신세계 출근룩 스니커즈 할인 프로모션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오니츠카타이거' 직원이 다양한 캐주얼 스니커즈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캐주얼 복장으로 출근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스니커즈와 운동화를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플레이 스팟에 위치한 '오니츠카타이거', 본관 3층 '에코' 등의 스니커즈 브랜드가 있다. 특히 에코는 25년 S/S 시즌 상품을 소진할 때까지 최대 30% 할인하는 시즌오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오픈

고객 편의성·정보 활용 대폭 확대

광주은행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사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주고, 개인의 재무현황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규 오픈한 마이데이터 2.0은 기존 서비스보다 고객 편의성 및 정보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자산 정보의 개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여러 기관의 자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가 간소화됐고, 마이데이터의 가입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됐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본부장은 "광주 Wa뱅크 앱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금융서비스 편의를 한 층 높인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2021년 7월 지방은행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해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은행 마이데이터 주요 기능으로는 월별 소비 내역을 분석하는 '내 금융 캘린더', 저축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1억 모으기',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신용올리기' 등이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전남중기청, 온·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

내일 DJ센터 '광주함께 JOB 페스타'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언택트 채용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은 "오는 30일까지 '2025 상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또 2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함께 JOB 페스타'를 열고 광주·전남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공동 개최하고, 광주시 인증기업, 전남 동·서부권 주력 산업관 등 광주·전남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120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구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http://광주전남일자리박람회.com)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NCS 직업역량 진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운영사무국(062-510-0923)이나 광주전남중기청(062-360-9147)으로 문의하면 된다.

26일 열리는 '2025 광주 함께 JOB 페스타'에서는 청년·중장년·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또 기존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현장 채용관부터 면접·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역량 강화 서비스, 일자리 정책관, 상생 플레이관 등을 운영한다.

박람회는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062-613-5991~4)나 광주전남중기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4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보상 접수를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주민피해 보상접수 30일 마감

13일까지 1만 3034명 피해 접수

금호타이어는 오는 30일까지 자체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보상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복지동 1층과 금호타이어 홈페이지 팝업 공지(https://tally.so/r/nrbd5v)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7일 광주공장 사고 발생 후 같은달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광산구와 주민 피해를 접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차 추가 접수까지 마감한 결과, 1만 3034명 2만 19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금호타이어는 피해 접수자를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와 등기 우편을 통해 절차·필요 서류·보상 기준 등을 안내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빠른 공장 정상화와 함께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해 접수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보상 접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첫 인프라 개관 기념 토크콘서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스테이지 2층에서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인프라인 '스테이지(STA.G)' 개관을 기념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성장동력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역 경제인들이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기획했다. 특히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로컬의 힘, 지역경제를 바꾸다'에 대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NH농협은행 오늘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 일시 제한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더 높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5일부터 대면과 비대면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 3년 9개월만에 3100선 돌파

코스닥도 11개월만에 800선 넘어

코스피가 24일 3% 가까이 상승하며 3년 9개월만에 31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 역시 2% 이상 오르며 11개월만에 800선을 돌파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 등 국제 정세가 완화되는 추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061.14로 시작해 전장보다 2.96% 오른 3103.6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 기준 3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여 만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종가 기준 8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일(813.53)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1741억원)과 기관(641억원)이 순매수했고, 개인(2081억원)은 순매도했다.

이 같은 상승 추세에 올라탄 광주·전남지역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주가도 20% 이상 올라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전은 전일 대비 20.71% 오른 3만 4100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로, 전년보다 76.23%나 상승한 수치다.

한전은 올 들어 지난해와 다르게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한데다 중동 분쟁 해소에 따른 국제 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 예상 등이 겹치면서, 연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03.64 (+89.17)
↑	코스닥	800.93 (+16.14)
↓	금리 (국고채 399년)	2.461 (-0.037)
↓	환율 (US D)	1363.30 (-21.00)

〈오후 4시 35분 기준〉